

# 소련의 경제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

## 1. 머리말

소련은 多民族국가로서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각 공화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족단위의 조직이며 일부 공화국에는 이 보다 규모가 작은 자치공화국과 자치주, 자치구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련의 연방제도는 1922년 12월에 설립된 것으로 美國이나 스위스의 제도와 달리 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이 법률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어 자치공화국이나 자치주 또는 자치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큰 공화국이 작은 공화국에 비하여 우월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단위 연방이라는 특징도 띠고 있다.

각 공화국이 민족단위를 기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공화국명도 각각 공화국내 다수민족의 이름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공화국내에서 다수 민족어가 러시아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 공화국은 경제개발이나 예산운용을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개혁 및 민주화 과정에서 민족문제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蘇聯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蘇聯邦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 가운데 이미 발트해 연안 3개 공화국이 주권을 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가장 규모가 큰 러시아공화국과 몰다비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白러시아, 아르메니아, 투르크멘 등 거의 대부분의 공화국이 자주주권을 선언한 바 있다. 더욱이 소련 전체인구의 50%, 면적의 3/4을 점유하는 러시아 공화국이 소련의 세계적인 자원인 다이아몬드, 金,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과거 연방정부와 외국기업간에 체결된 판매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소연방체제의 분열위기가 한층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서방기업들에게도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이라는 사회의 투자환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공화국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 사회의 성격상 각종 경제정보자료가 아직까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하 本稿에서는 제한된 자료이나마 소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의 경제개황과 대외경제관계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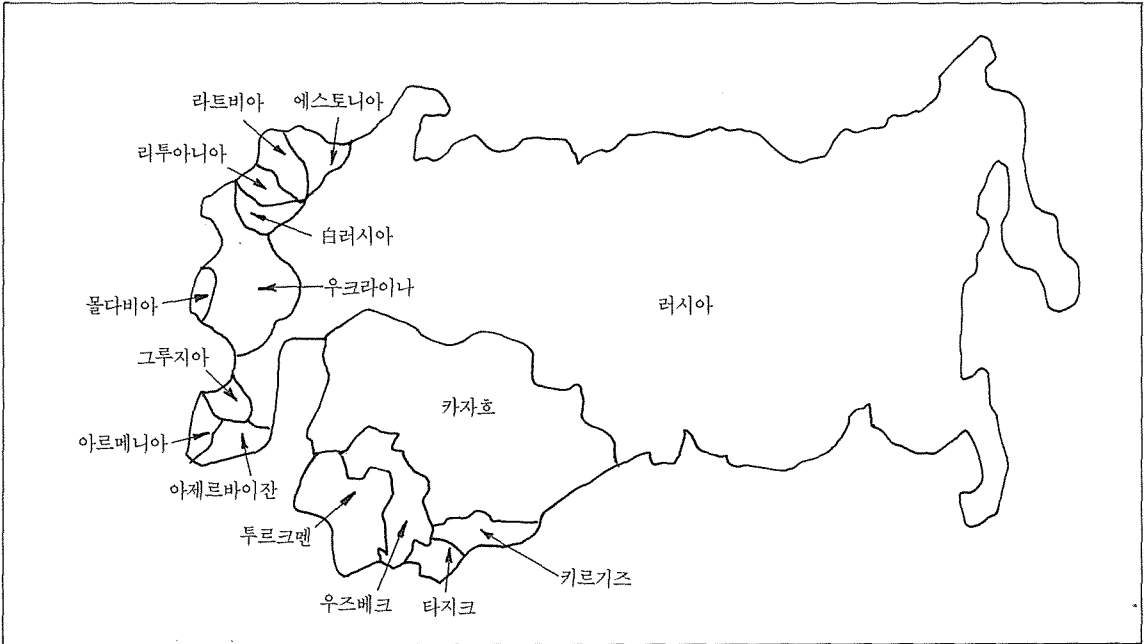
## 2. 蘇聯邦공화국의 구성

蘇聯邦을 구성하는 공화국은 현재 15개이며 일반적으로 연방구성공화국으로 불리어 진다. 이밖에 연방구성공화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족중에서 상대적으로 강대한 민족은 자치공화국(현재 20개), 이 보다 약소한 민족은 자치주(8개) 또는 자치구(10개)를 일부 연방구성공화국내에 제각기 포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다.

### (1) 연방구성공화국(constituent republic)

현재 15개인 연방구성공화국은 국가안보와 외교 등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며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체 헌법과 국기, 국가 등을 가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개발 및 예산운용도 자체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림-1〉 蘇聯邦 구성공화국



연방구성공화국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기본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성립요건이 연방으로부터의 탈퇴권 인정을 전제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① 일정한 지구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총인구가 100만명 이상에 달하고
- ② 공화국명에 자기민족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총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 ③ 당해지구가 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야 한다.

(2) 자치공화국(Autonomous Republic)

일부 연방구성공화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자치공화국도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체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자기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현재 자치공화국은 모두 20개인데, 각각 소속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공화국 : Bashkir, Buryat, Dagestan, Kabardin-Balkar, Kalmyk, Karelian, Komi, Mari, Mordovian, North Ossetian, Tater, Tuva, Udmurt Chechen-Ingush, Chuvash 및 Yakut 自治共和國

(16개)

- 우즈베크공화국 : Kara-Kalpak 자치공화국(1개)
- 그루지아공화국 : Abkhasian 및 Adzhar 자치공화국(2개)
- 아제르바이잔공화국 : Nakhichevan 자치공화국(1개)

(3) 자치주(Autonomous region)와 자치구(Autonomous area)

자치주는 자치공화국 보다 규모가 작은 민족단위의 조직으로서 연방구성공화국 또는 자치공화국의 일부에 포함된다. 현재 모두 8개인데, 각각의 소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공화국 : Adygei, Gorno-Altai, Jewish, Khachayev-Cherkess 및 Khakass 자치주(5개)
- 그루지아공화국 : South Ossetian 자치주(1개)
- 아제르바이잔공화국 : Nagorno-Karabakh 자치주(1개)
- 타지크공화국 : Gorno-Badakhshan 자치주(1개)

또한 현재 모두 10개인 자치구는 가장 작은 규모의 자치민족단위로서 모두 러시아공화국에 속하여 있다.

### 3. 각 공화국의 경제개황

#### (1) 일반개황 및 경제상황

(가) 러시아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

러시아공화국은 소연방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 중

모든 점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공화국이다.

인구는 1989년 1월 현재 1억 4,700만명 (전체인구의 51.4%)으로서 연방구성공화국중에서 가장 큰 공화국이며,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우크라이나공화국 인구의 3 배에 가까운 규모이다(〈표-1〉참조). 면적은 소련 전체 국토면적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발트해 및 북극해에서부터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까지 이르며, 내부에

〈표-1〉 각 공화국의 일반개황

	면적 (천km)	수도 (인구 : 천명)	인구 (천명)	인 종 (구성비)	공화국성립일 (연방가입일)
러 시 아	17,075.4	Moscow (8,967)	147,386	러시아인(86.2), 타타르인(3.6) 우크라이나인(2.7), 체콰시인(1.2)	1917.11. 7 (1922.12.30)
우 크 라 이 나	603.7	Kiev (2,587)	51,704	우크라이나인(77), 러시아인(22) 白러시아인(0.8), 몰다비아인(0.6)	1917.12.25 (1922.12.30)
白 러 시 아	207.3	Minsk (1,589)	10,200	白러시아인(79.4), 러시아인(11.9)	1919. 1. 1 (1922.12.30)
몰 다 비 아	33.7	Kishinev (665)	4,341	폴란드인(4.2), 우크라이나인(2.4) 몰다비아인(63.9), 우크라이나인(14.2), 러시아인(12.8), 키가우지인(3.5), 유태인(2.0), 불가리아인(2.0)	1924.10.12 (1940. 8. 2)
리 투 아 니 아	65.2	Vilnius (582)	3,690	리투아니아인(80.1), 러시아인(8.6), 폴란드인(7.7), 白러시아인(1.5)	1940. 7.21 (1940. 8. 3)
라 트 비 아	64.6	Riga (915)	2,681	라트비아인(53.7), 러시아인(32.8), 白러시아인(4.5), 폴란드인(2.5), 우크라이나인(2.7)	1940. 7. 21 (1940. 8. 5)
에 스토 니 아	45.1	Tallinn (482)	1,573	에스토니아인(64.7), 러시아인(27.9), 우크라이나인(2.5), 白러시아인(1.6), 핀란드인(1.2)	1940. 7.21 (1940. 8. 6)
그 루 지 아	69.7	Tbilisi (1,260)	5,449	그루지아인(68.8), 아르메니아인(9.0), 러시아인(7.4), 아제르바이잔인(5.1), 오셋트인(3.2)	1921. 2.25 (1936.12. 5)
아 제 르 바 이 잔	86.6	Baku (1,757)	7,029	아제르바이잔인(78.1), 러시아인(7.9)	1920. 4. 28 (1922.12.30)
아 르 메 니 아	29.8	Yerevan (1,199)	3,283	아르메니아인(89.7), 아제르바이잔인(5.3), 러시아인(2.3), 쿠르드인(1.7)	1920.11.29 (1922.12.30)
우 즈 베 크	447.4	Tashkent (2,073)	19,906	우즈베크인(68.7), 러시아인(10.8), 타타르인(4.2), 카자흐인(4.0), 타지크인(3.9)	1924.10.27 ( )
카 자 흐	2,717.3	Alma-Ata (1,128)	16,538	카자흐인(36), 러시아인(40.8), 우크라이나인(6.1), 타타르인(2.1)	1920. 8. 26 (1936.12. 5)
키 르 기 즈	198.5	Frunze (616)	4,281	키르기즈인(40.7), 러시아인(22), 우즈베크인(10.3), 우크라이나인(2.6), 타타르인(1.7)	1926. 2. 1 (1936.12.5)
타 지 크	143.1	Dushanbe (595)	5,112	타지크인(58.8), 우즈베크인(22.9) 러시아인(10.4), 타타르인(2.1)	1924.10.14 (1929.10.16)
투 르 크 멘	488.1	Ashkhabad (398)	3,534	투르크멘인(68.4), 러시아인(12.6) 우즈베크인(8.5), 카자흐인(2.9)	1924.10.27 ( )

〈주〉 인구는 1989. 1. 1 현재이며, 인종은 1979년의 센서스에 의한 것임.

〈자료〉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89. 에 의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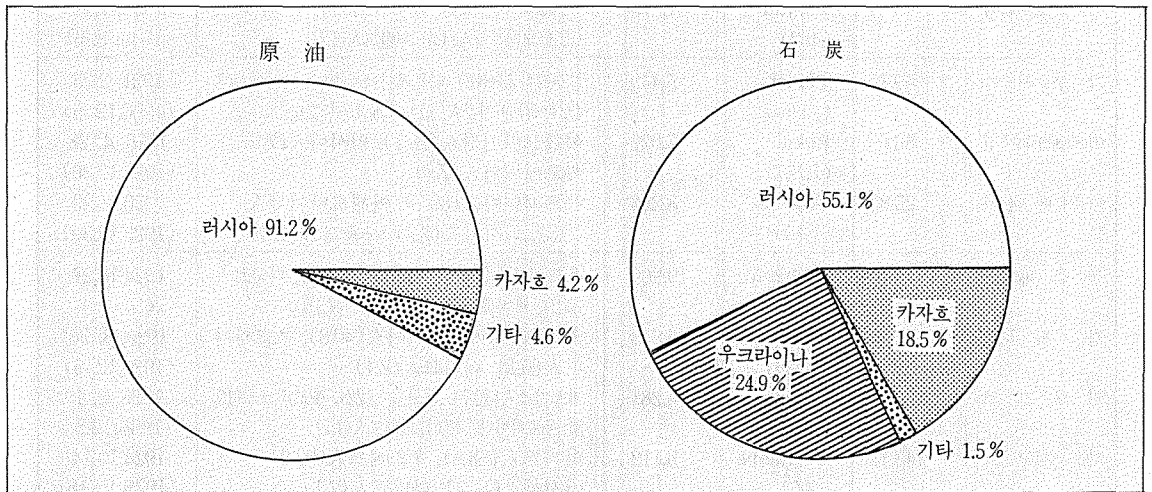
〈표-2〉 각 공화국의 에너지생산현황(1988)

	전 력 (백만 kwh)	석 유 (백만톤)	천연가스 (십억m <sup>3</sup> )	석 탄 (백만톤)
소 련 전 체	1,705(100)	624(100)	796(100)	740(100)
러 시 아	1,066( 63)	569( 91)	610( 77)	408( 55)
우 크 라 이 나	297( 17)	6( 1)	33( 4)	184( 25)
白 러 시 아	38( 2)	2( -)	...	0
몰 다 비 아	17( 1)	0	0	0
리 투 아 니 아	16( 2)	0	0	0
라 트 비 아	5( -)	0	0	0
에 스토 니 아	17( 1)	0	0	0
그 루 지 아	15( 1)	...	...	2( -)
아 제 르 바 이 잔	24( 1)	14( 2)	12( 2)	0
아 르 메 니 아	15( 1)	0	0	0
우 즈 베 크	51( 3)	3( -)	41( 5)	5( 1)
카 자 호	89( 5)	26( 4)	7( 1)	137( 19)
키 르 기 즈	14( 1)	...	...	4( 1)
타 지 크	19( 1)	...	...	1( -)
투 르 크 멘	14( 1)	6( 1)	92( 12)	0

〈주〉 괄호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는 0.5% 이하임.

〈자료〉 Soviet 1988 Statistical yearbook(Markhoz)

〈그림-2〉 소련의 원유 및 석탄 생산(1988)



16개의 자치공화국과 5개의 자치주, 10개의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의 대부분이 러시아공화국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공화국은 소련전체 석유생산량의 90%와 천연 가스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으며, 그밖의 주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표-2〉 및 〈그림-2〉)

참조).

또한 농업 및 공업부문도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농산물은 곡류, 감자, 채소, 사탕무우 등이고 주요공산품은 석유, 종이, 시멘트, 자동차, 강관등이다 (<표-3> 참조).

(나) 서부 3개 공화국

①우크라이나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공화국은 러시아공화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생산물의 소련전체생산량에 대한 비중도 러시아공화국 다음으로 높다.

석탄생산량은 1988년에 소련전체생산량의 1/4을 차지하였으며, 그밖의 천연가스 및 전력의 생산비중도 높다. 우크라이나공화국의 산업은 일찍부터 개발된 우크라이나 공업지대의 중공업과 우크라이나 평원의 농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종이, 시멘트, 철광석, 철관등의 광물 및 공업제품과 곡물, 사탕무우, 감자, 채소 등의 農産物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표-3> 각 공화국의 주요 생산물

	농 산 물	에너지 및 공산품
러 시 아	곡물, 감자, 사탕무우, 채소, 해바라기씨, 포도, 亞麻纖維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면직물, 모직물, 종이, 시멘트, 강관, 자동차, 철광석
우 크 라 이 나	곡물, 사탕무우, 감자, 채소, 해바라기씨, 포도, 亞麻纖維	석탄, 석유, 天然가스, 전력, 종이, 시멘트, 철광석, 철관, 자동차
白 리 시 아	감자, 穀物, 사탕무우, 과일, 채소, 亞麻纖維	土炭, 석유, 天然가스, 전력, 합성섬유, 종이, 시멘트, 粗鋼, 텔레비전
몰 다 비 아	사탕무우, 곡물, 포도, 감자, 해바라기씨	냉장고, 펌프, 트랙터, 전력
리 투 아 니 아	곡물, 감자, 사탕무우, 채소, 亞麻纖維	종이, 플라스틱, 화학섬유, 화학비료, 황산, 전력
라 트 비 아	곡물, 감자, 亞麻섬유, 사탕무우, 채소	철강, 철관, 화학비료, 플라스틱, 화학섬유, 종이
에 스 토 니 아	곡물, 감자, 채소, 과일	石油頁岩, 土炭, 종이, 굴착기, 전력
그 루 지 아	곡물, 채소, 과일, 감자, 차	강간, 망간광석, 무기비료, 합성섬유, 플라스틱, 종이
아 제 르 바 이 잔	포도, 곡물, 채소, 면화, 감자	철광석, 강관, 무기비료, 냉장고, 펌프, 의류 및 카펫트
아 르 메 니 아	채소, 곡물, 포도, 감자, 사탕무우	합성섬유, 화학비료, 황산, 타이어
우 즈 베 크	면화, 곡물, 채소, 포도	종이, 플라스틱, 황산, 무기비료, 석탄, 天然가스, 전력
카 자 호	곡물, 감자, 사탕무우, 채소	전력, 석유, 석탄, 철관, 철광석, 무기비료, 플라스틱
키 르 기 즈	곡물, 채소, 감자	석탄, 전력, 시멘트, 粗鋼
타 지 크	면화, 채소, 곡물, 감자	전력, 석탄, 냉장고, 鋼線, 섬유, 의류, 카펫트, 시멘트
투 르 크 멘	면화, 곡물, 채소, 포도	석유, 天然가스, 전력, 무기비료, 황, 황화나트륨

<자료>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89에 의거 작성

② **벨라루스사회주의공화국** (*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스사회주의공화국은 우크라이나공화국과 함께 서부지방에 위치하는 2개의 작은 공화국 중의 하나이며 우크라이나공화국과 유사하게 제조업과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주요 생산물은 감자, 곡물, 사탕무, 과일, 토탄, 합성섬유, 종이, 시멘트, 조강, 텔레비전 등이다.

③ **몰도바사회주의공화국** (*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도바사회주의공화국은 서부지역에서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아르메니아공화국에 이어 2번째로 작다. 산업은 농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사탕무, 곡물, 채소, 포도 등이고 주요 공산품은 냉장고, 펌프, 트랙터 등이다.

다. 발트해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의 발트해 3국은 면적이 협소하고 총인구가 800만 명 정도에 불과하며 에너지생산도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경공업 및 엔지니어링부문은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① **리투아니아사회주의공화국** (*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사회주의공화국은 소련의 북서부지역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접경하고 있다. 주로 곡물, 감자, 사탕무 등의 농산물과 종이, 플라스틱, 화학비료, 황산 등의 공산품이 생산되지만 생산규모가 작은 편이며, 약간의 전력이 생산되는 것을 제외하면 에너지생산도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② **라트비아사회주의공화국** (*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사회주의공화국도 리투아니아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북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러시아공화국과 접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곡물, 감자, 사탕무 등의 농산물과 철강, 철판, 화학비료 등의 공산품이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④ **에스토니아사회주의공화국** (*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공화국은 발트해 3국중에서 면적이나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공화국이다.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핀란드와 같이 산림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곡물과 감자, 석유頁岩 *oil-shale*, 土炭, 종이 등이 다소

생산되고 있다.

라. 트랜스코카시아 3국

① **그루지아사회주의공화국** (*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舊자카프카즈공화국에 위치하는 3개의 공화국 가운데 그루지아공화국은 비옥한 농지에 흑해연안을 따라 다습한 아열대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식물의 생장에 좋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곡물, 채소, 과일, 차 등이며, 주요 鑛·工業品은 강관, 망간鑛石, 무기비료, 합성섬유 등이다.

② **아제르바이잔사회주의공화국** (*The Azerbaidzh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트랜스코카시아지방의 동부, 카스피해에 인접한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는 석유 및 天然가스가 다소 채굴되지만 소련전체생산량에서는 불과 2% 정도를 점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농산물로는 포도, 곡물, 채소 면화등이 주로 생산되며 鑛·工業製品으로는 철광석, 강관, 냉장고, 의류 및 카펫트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③ **아르메니아사회주의공화국** (*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공화국은 트랜스코카시아남서부의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비옥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농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여 있으며 채소, 곡물, 포도 등의 농산물과 합성섬유, 화학비료, 황산, 타이어 등의 공산품이 주로 생산된다.

라. 中央아시아 지역

① **우즈베크공화국** (*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소련의 남부, 中央아시아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우즈베크공화국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면방적공업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면화, 곡물, 채소, 포도등이고 공산품으로는 종이, 플라스틱, 황산, 무기비료 등이 주로 생산된다. 특히 천연가스의 생산은 소련전체생산의 5%를 점유하고 있다.

② **카자흐공화국** (*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공화국은 15개 소연방공화국 중에서 러시아공화국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농산물의 생산량도 많은 편이다. 1970~80년대에는 이들 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이주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에너지생산 중에서 석탄생산량은 소련전체생산량의 19%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및 석유의 생산량도 많은 편이다. 농산물로는 곡물, 감자, 사탕무, 채소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철광석의 생산량도 많은 편이다.

③ 키르기즈공화국 (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즈공화국은 비교적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중에서도 석탄과 전력의 생산량이 소련전체생산량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도 곡물을 제외한 농작물의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다.

④ 타지크공화국 (The Tadzhi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크공화국 역시 키르기즈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약간의 석탄을 제외하고는 에너지자원생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농업부문에서도 면화와 채소, 곡물, 감자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다. 공업부문에서는銅線과 냉장고, 섬유류, 시멘트 등이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⑤ 투르크멘공화국 (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공화국은 중앙아시아 남서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카라쿰(kara-kum) 사막이 전체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시설이 농작물의 경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량의 석유와 매장량이 풍부한 천연가스 등을 채굴하기 위해 사막지역에의 정착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면화를 제외하고는 농작물의 생산량이 매우 적으며, 공산품으로는 무기비료와 황, 황화나트륨 등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1988년 소련전체생산량의 12%를 점유하였다.

(2) 계획경제로 인한 각 공화국의 문제점

중앙계획경제를 견지하여 온 소련은 자급자족경제를 지향한다는 원칙하에서 각 공화국간에도 산업의 적정 배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각 개별 공화국은 부존자원의 상이, 기후·지형조건의 차이, 노동력분포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그러한 자급자족경제를 이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컨대, 소련방 전체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어떤 상품을 보면 불과 몇몇 지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여러 공화국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자체내의 소비와 투자에 필요한 각종 상품은 다른 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 전문화 또는 특화라고 하는 것이 통상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에서는 중앙통제에 의한 무리한 산업배분을 시행하여 온 결과 각종 생산부문의 비효율성과 궁핍화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생산거점이 중앙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결과 원재료의 산지 또는 최종 소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공화국과의 유통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공화국별 대외경제관계

(1) 공화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각 공화국간의 경제관계를 보면 천연자원의 부존 및 공업화 정도에 따라 교역관계가 형성되고, 연방정부의 가격, 조세 및 보조금정책 등에 의해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소련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간의 상품교역규모는 사회총생산(GSP)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각 공화국간의 상호 경제활동 및 의존관계는 상품의 교역 규모와 이것이 각 공화국의 생산 및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각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에서는 두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공화국의 면적이 작을수록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즉 소규모 공화국에서는 외국 및 타공화국으로부터의 반입이 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외국 및 타공화국으로의 반출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높은 반면, 대규모 공화국에서는 이와 같은 반출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규모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공화국이 다른 공화국으로부터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각종 기계설비, 화학제품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표-4〉 각 공화국의 반출입 현황(1988)

(단위 : 백만 루블)

	반 입			반 출		
	공화국간무역	수 입	計	공화국간무역	수 출	計
러 시 아	68,963.9	66,901.2	135,865.1	69,224.2	33,313.5	102,537.7
우 크 라 이 나	36,431.6	13,430.7	49,862.3	40,055.2	6,880.1	46,935.3
白 러 시 아	14,171.4	3,672.4	17,843.8	18,221.7	1,695.5	19,917.2
몰 다 비 아	4,986.5	1,093.9	6,080.4	4,800.3	257.2	5,057.5
리 투 아 니 아	6,238.5	1,249.1	7,487.6	5,430.7	527.1	5,957.8
라 트 비 아	4,632.8	958.4	5,591.2	4,515.2	380.9	4,896.1
에 스토 니 아	3,047.2	661.4	3,708.6	2,715.1	245.9	2,961.0
그 루 지 아	5,218.4	1,274.5	6,492.9	5,508.1	392.7	5,900.8
아 제 르 바이 잔	4,258.2	1,414.0	5,672.2	6,357.5	424.5	6,782.0
아 르 메 니 아	4,017.6	858.8	4,876.4	3,683.1	83.9	3,767.0
우 즈 베 크	10,623.7	1,703.4	12,327.1	8,957.2	1,529.7	10,486.9
카 자 흐	13,686.4	2,733.7	16,420.1	8,337.1	827.7	9,164.8
키 르 기 즈	2,971.8	773.0	3,744.8	2,536.8	58.6	2,595.4
타 지 크	3,022.6	469.8	3,492.4	2,025.2	333.5	2,358.7
투 르 크 멘	2,486.0	432.2	2,918.2	2,389.2	245.0	2,634.2

〈자료〉 소련東歐貿易會, 소련東歐貿易 調査月報. 1990. 7.

〈표-5〉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반출입 비중(1988)

(단위 : %)

	생산대비 반출비중	소비대비 반입비중
러 시 아	11	14
우 크 라 이 나	16	18
白 러 시 아	27	26
몰 다 비 아	28	27
리 투 아 니 아	24	27
라 트 비 아	24	27
에 스토 니 아	25	29
그 루 지 아	26	27
아 제 르 바이 잔	26	22
아 르 메 니 아	28	29
우 즈 베 크	18	24
카 자 흐	12	20
카 르 기 즈	21	28
타 지 크	21	29
투 르 크 멘	22	25

〈자료〉 〈표-4〉와 같음.

결국 많은 공화국의 경제가 연방전체의 수요-공급을 아직도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있는 연방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외에 다른 공화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제품의 판매와 구입을 위한 '市場'을 국외로 크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 각 공화국의 대외수지

각 공화국의 대외수지는 소련 국내제품의 공화국간 교역과 대외무역의 2개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내제품의 공화국간 교역에서 어떤 공화국으로부터의 반출은 다른 공화국의 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공화국 수지의 총계는 '0'으로 된다.

공화국별로 국내 공화국간의 교역과 대외무역을 함께 감안한 대외수지를 보면, 白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모든 공화국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수지의 적자현상은 주로 대외무역의 적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공화국의 대외무역수지를 합하면, 소련이 전체적으



〈표-6〉 각 공화국의 대외수지(1988)

(단위 : 백만 루블)

	전 체	내 역	
		國産品の 공화국간 교역	대외무역
러 시 아	-33,327.4	260.3	-33,587.7
우 크 라 이 나	-2,927.0	3,623.6	-5,550.6
白 러 시 아	2,073.4	4,050.3	-1,976.9
몰 다 비 아	-1,029.9	-186.2	-836.7
리 투 아 니 아	-1,529.8	-807.8	-722.0
라 트 비 아	-695.1	-117.6	-577.5
에 스토 니 아	-747.6	-332.1	-415.5
그 루 지 아	-592.1	289.7	-881.8
아 제 르 바 이 잔	1,109.8	2,099.3	-89.5
아 르 메 니 아	-1,109.4	-334.5	-774.9
우 즈 베 크	-1,840.2	-1,666.5	-173.7
카 자 흐	-7,255.3	-5,349.3	-1,906.0
카 르 기 즈	-1,149.4	-435.0	-714.4
타 지 크	-1,133.7	-997.4	-136.3
투 르 크 멘	-284.0	-96.8	-187.2

〈자료〉 〈표-4〉와 같음.

로 대외무역에서 약 500억루블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88년 중 실제 소련의 대외무역수지가 약 20억루블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 대규모의 적자로 나타나는 것은 수입상품의 가격격용시

국제관행상의 CIF가격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소련정부당국이 책정한 높은 국내 유통가격 기준으로 대외수지가 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국내제품의 공화국간 교역에서는 러시아와

〈표-7〉 각 공화국의 요인별 대외수지(1988)

(단위 : 십억루블)

	요 인 별					左記요인을 고려한 총대외수지
	거래세의 재 배 분	보조금 지급대상 제품을 소비하는 공화국에의 보상	重 工 業 産 品 의 价 格 变 更	출입국자의 구입 및 판매	計	
러 시 아	-3.4	-5.1	16.6	0.1	8.2	-25.1
우 크 라 이 나	-1.2	1.6	-1.9	-0.4	-1.9	-4.8
白 러 시 아	-1.1	1.7	-2.1	0.6	-0.9	1.2
몰 다 비 아	0.9	0.3	-0.6	0.6	1.2	0.2
리 투 아 니 아	-0.4	0.8	-1.0	0.5	-0.1	-1.6
라 트 비 아	-0.2	0.4	-0.5	0.5	0.2	-0.5
에 스토 니 아	-0.1	0.2	-0.3	0.3	0.1	-0.6

	요 인 별					左記요인을 고려한 총대외수지
	거래세의 재 배 분	보조금 지급대상 제품을 소비하는 공화국에의 보상	工 業 제 품 의 가 격 변 경	출입국자의 구입 및 판매	計	
그 루 지 아	0.6	-0.3	-0.4	-0.7	-0.8	-1.4
아 제 르 바 이 잔	1.8	-0.4	0.0	-0.4	1.0	2.1
아 르 메 니 아	0.2	-0.3	-0.2	-0.2	-0.5	-1.6
우 즈 베 크	1.5	0.0	-0.6	-0.4	0.5	-1.4
카 자 흐	0.2	1.0	-0.2	-0.5	0.5	-6.8
키 르 기 즈	0.3	0.1	-0.3	0.03	0.1	-1.1
타 지 크	0.4	-0.1	-0.2	0.2	0.3	-0.8
투 르 크 멘	0.5	0.1	0.5	-0.2	0.9	0.6

<자료> <표-4>와 같음.

白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그루지아등 5개 공화국이 흑자를 기록한 반면에, 중앙아시아 및 발트해 연안공화국과 카자흐, 몰다비아, 아르메니아 등의 共和國은 약 1억 루블에서부터 54억루블까지의 적자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각 공화국의 대외수지는 거래세, 보조금등에 의한 가격변동이나 출입국자의 물품매입 및 판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들 요인을 고려한 대외수지는 <표-7>과 같다. 여기에서는 ①거래세 과세대상 품목(면직물, 모직물, 포도주, 담배, 석유제품등)의 생산에 대하여 거래세를 각 공화국별 노동투입량에 비례하여 배분한 경우, ②보조금 지급대상제품(석유, 乳製品, 야채통조림, 생선, 면화등)을 소비하는 공화국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③가격변경에 관한 소련자료회의 결정 제741호(1988. 6. 14자)에 따라 중공업제품의 가격을 변동시킨 경우, 그리고 ④각 공화국에 출입국하는 개인의 물품구입액 및 판매액을 산정한 경우 등의 대외수지를 각각 산출하고, 이들 요인을 고려한 총대외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지금까지의 정책가격 기준에서 벗어나 가격현실화를 시킬 경우 러시아공화국을 비롯한 10개 공화국은 대외수지가 호전되는 반면, 우크라이나공화국을 비롯한 5개 공화국은 악화되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몰다비아와 투르크멘공화국은 入超에서 오히려 出超로 반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국제가격을 적용한 대외수지

소련에서는 중앙계획경제체제로 말미암아 가격체계가 크게 왜곡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한 각 공화국의 대외수지를 보면 <표-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대외수지를 국내가격에 의한 것과 비교할 때 白러시아와 리투아니아, 몰다비아등 모두 9개 공화국에서 대외수지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을 白러시아공화국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대외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 석유 및 천연가스의 구입과 관련되어 있다. 즉 白러시아공화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구입액은 국내가격으로 12.3억루블 및 2.6억루블에 불과하지만 국제가격으로는 그보다 2~3배가 높은 각각 40.7억루블 및 5.6억루블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요 반출품목인 酒類, 모직물, 견직물, 축산물 등의 반출액은 국제가격으로 표시하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를 비롯한 6개 공화국은 대외수지가 호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공화국은 대규모의 흑자로 전환되는데, 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기계·설비등은 국제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동시에 경공업제품과 식품, 농산물 등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국제시장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경공업 및 식품의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반면에 석유, 천연

〈표-8〉 공화국별 제품 반출·반입(1988)

(단위 : 십억루블)

	반입(輸入포함)		반출(輸出포함)		수 지	
	국내가격	국제가격	국내가격	국제가격	국내가격	국제가격
러 시 아	135.86	101.9	102.54	132.7	-33.32	30.8
우 크 라 이 나	49.86	47.4	46.94	44.5	-2.92	-2.9
白 러 시 아	17.84	18.5	19.92	16.4	2.08	-2.1
폴 다 비 아	6.1	5.1	5.06	2.5	-1.04	-2.6
리 투 아 니 아	7.49	7.8	5.96	4.1	-1.53	-3.7
라 트 비 아	5.6	5.0	4.9	3.7	-0.7	-1.3
에 스토 니 아	3.7	3.2	3.0	1.9	-0.7	-1.3
그 루 지 아	6.49	5.3	5.9	3.4	-0.59	-1.9
아 제 르 바 이 잔	5.7	5.1	6.8	4.6	1.1	-0.5
아 르 메 니 아	4.88	3.6	3.76	2.2	-1.12	-1.4
우 즈 베 크	12.32	10.5	10.49	8.0	-1.83	-2.5
카 자 흐	16.4	15.6	9.1	9.0	-7.3	-6.6
키 르 기 즈	3.77	3.2	2.56	2.1	-1.21	-1.1
타 지 크	3.49	2.8	2.33	1.7	-1.16	-1.1
투 르 크 멘	2.9	2.4	2.6	2.4	-0.3	0

〈자료〉 〈표-4〉와 같음.

가스, 철강, 기계·설비등의 품목은 국제시장에서는 국내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

다. 따라서 많은 공화국이 실질적으로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은 국제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반입하고,

〈표-9〉 각 공화국의 외국인투자 현황(1989.10.1현재)

(단위 : 백만달러)

지역별	투자금액	건수	지역별	투자금액	건수
러 시 아	1,249.8	689	그 루 지 아	48.3	29
모 스 크 바	822.0	466	아 제 르 바 이 잔	15.1	6
모스스크바근교	19.2	16	아 르 메 니 아	21.1	8
레 닌 그 라 드	85.4	74	우 즈 베 크	18.9	7
레닌그라드근교	6.4	6	카 자 흐	6.4	8
기 타 지 역	316.8	127	키 르 기 즈	0.0	0
우 크 라 이 나	96.8	57	타 지 크	1.3	2
白 러 시 아	39.3	16	투 르 크 멘	2.0	1
몰 다 비 아	10.3	8	未 詳	0.3	2
리 투 아 니 아	37.5	10			
라 트 비 아	21.8	23	計	1,620.8	929
에 스토 니 아	52.1	63			

〈자료〉 소련東歐貿易會, 소련東歐貿易 調査月報. 1990. 3월호

경공업 및 식품공업제품은 훨씬 높은 가격으로 반출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한편 각 공화국의 대외무역수지를 합한 소련전체의 대외무역수지는 각기 적용한 가격 체계의 상이점으로 인해 실제수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국제가격을 적용할 경우 적자규모가 50억루블에서 18억루블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蘇聯과의 무역비중이 크지만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제태환성이 없는 루블貨에 의해 결제되고 있는 COMECON 역내무역이 1991년부터 국제시장에 근접한 가격과 경화 기준으로 전환될 경우, 소련의 무역수지가 크게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 각 공화국별 외국인투자

각 공화국별 외국인투자동향을 보면 1989년말 러시아 공화국에 대한 투자가 689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모스크바에는 전체투자의 50%가 집중되어 있으며, 레닌그라드에 대한 투자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지역에 위치한 공화국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맺는말

소련이 민족단위를 원칙으로 하는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지만, 대부분의 경제력이 러시아공화

국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의 중앙계획경제체제하에서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이 시장경제로의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각 공화국의 경제적 자율성이 증대되고 가격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각 공화국의 생산 및 소비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對 서방 무역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볼 때 각 공화국의 무역수지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생활수준도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한편, 소련은 각 공화국의 연방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러시아공화국이 자체 보유자원에 관한 관할권을 연방정부로부터 되찾겠다고 나섬으로써 연방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연방정부는 금년말까지 연방정부와 각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새로운 연방조약안을 마련중에 있어, 앞으로 소련방체제는 각 공화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정부는 군사, 외교 및 거시적 경제정책만을 집행하는 훨씬 완화된 연방형태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서 각 공화국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500일 급진경제개혁안"의 일환으로 향후 100일 이내에 독자적인 銀行制度와 豫算 및 外國人投資法 등을 마련하고 공화국별 Reserve System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주간 해외 투자정보)

### □신 간□

# 1990년 石油年報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